

#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1월 첫째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1월 둘째주

---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1월 둘째주는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계절을 맞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기에 맞는 기도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은혜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1월 둘째주 1 - 감사의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5:1)

---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11월 둘째 주를 맞아 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봄에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셨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주셨고, 이제 겨울을 앞두고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요, 매 순간이 주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셨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연단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예배의 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섭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단의 아픔 가운데서도 평화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감사를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1월 둘째주 2 - 가족을 위한 기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머리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부모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육관을 갖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는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학업의 스트레스와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스마트폰과 게임, SNS에 빠져 가족과의 소통이 줄어드는 요즘 시대에 가족 간의 대화와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아픈 가족들을 특별히 돌봐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상처받은 마음들이 용서와 화해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1월 둘째주 3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34)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개인의 이익이나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요즘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이념 대립이 치유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물가 상승과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허락하시고, 노인들에게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주옵소서.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통일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로 메말라가는 사회 풍토가 변화되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사회 정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복음이 이 땅 곳곳에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1월 둘째주 4 -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도들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목회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 봉사자들이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며,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봉사하다가 지치거나 상처받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새벽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과의 만남을 사모하여 나오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도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염려, 자녀들의 문제 등 각각의 고민과 기도제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신앙에서 멀어진 이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게 하옵소서. 교회 내의 갈등이나 분열이 있다면 용서와 화해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와 학생부, 어린이부의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1월 둘째주 5 - 사회와 세계를 위한 기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전 세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시옵소서.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 장애인들과 소외계층들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주어지게 하시고,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져서 아무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보호해 주시고,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지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교사들에게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새롭게 하시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사회 필수 인력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분쟁 지역들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료되어 무고한 희생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중동 지역의 갈등도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에게 안전한 거처와 필요한 도움이 제공되게 하옵소서.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이 나오게 하옵소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환경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시고, 개인들도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가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물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금지된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인내를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